

# 동아시아학 속의 한국학

— 미국 UC 버클리의 사례를 중심으로 —

장재용\* · Rachel Min Park\*\*

## 〈차 례〉

1. 들어가며
2. 미국 내 지역학 제도화의 기원: 미국동양학회와 태평양문제연구회
3. 미국 내 지역학 제도화의 정착:  
태평양 전쟁(1941-1945)과 베트남 전쟁(1955-1973)
4. UC 버클리의 한국학 연구자들
5. 나오며

## [국문초록]

최근 몇 년 동안 세계 각국에서 한국학의 성장세는 뚜렷하지만, 한국 안에서의 한국학과 한국 밖, 특히 미국의 한국학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미국에서 한국학의 발전이 동아시아 연구라는 좀 더 넓은 맥락과 어떤 불가분의 관계가 있었는지를 미국 UC 버클리대학교의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UC 버클리대학교 한국학의 성장은 미국이 참가하였던 두 차례의 국제전, 태평양 전쟁과 베트남 전쟁 수행과정에서 연방정부의 지역 전문가의 육성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이 글은 궁극적으로는 한국학의 연구 방법론을 재고하고 학문적 차원에서 국가 간 교류를 촉진하여 한국학 연구의 생산적인 틀을 새롭게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UC 버클리, 동아시아학, 한국학, 미국동양학회, 태평양문제연구회, 미해군일본어학교, 타이틀 6, 최봉윤, 조지 맥아피 맥쿤, 마이클 코트니 로저스, 로버트 안토니 스칼로피노

\* UC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 UC 버클리대학교비교문화과

## 1. 들어가며

한국 학계에서 '한국학'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1960년대 후반의 일이다.<sup>1)</sup> 이후 지난 60여 년 동안 '한국학'의 개념을 정의하는 거대 담론부터 시작해 한국학의 발전 과정과 향후 방안 등 미시적 전략을 다루는 논의는 지금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여러 대학들은 '한국학' 명칭을 사용하는 학과, 학부, 대학원, 연구소 등을 설립하였으며 국가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적어도 미국 학계에서의 상황은 이와는 사뭇 다르다. 'Koreanology' 혹은 'Korean Studies'의 개념에 대한 논쟁은 처음부터 필요하지 않았다. 한국학의 미래에 대해서 학계가 스스로 모여 함께 고민한 흔적을 찾기란 쉽지 않으며 미국 정부의 지원도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다른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왜 한국학을 하느냐의 질문에 대한 해답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최근 한 논문의 표현처럼,<sup>2)</sup> 한국에서의 한국학이 한국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면, 미국에서의 한국학은 '알고 싶은' 지역학의 일부이다. 이러한 차이는 미국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동아시아학'이라는 넓은 맥락에서 한국학이 지니는 개별적 혹은 일반적인 특성들을 찾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한국에서 진행되는 한국학 연구는 오로지 '한국학'에만 초점을 맞추려는 경향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명백한 시각의 차이는 좀처럼 해소되기 어려운 듯하다.

이 논문은 미국 제도권 학계에서 '한국학'을 가장 이른 시기에 시작한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버클리캠퍼스(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이하 UC 버클리)의 '한국학' 발전 과정과 연관된 역사적 사건, 주요 학회 및 기관 그리고 인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이 논문을 계기로 상이한 관점을 가진 한국에서의 한국학과 미국에서의 한국학의 상호 이해를 넓히는

1) 김경일, 「한국학의 기원과 계보: 한국과 동아시아, 미국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64, 한국사회학회, 2003, 129쪽; Andrew Nahm, "The Development of Korean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Korean Studies* 1, no. 2, June 1971, p.31.

2) 권준희, 「알리기 위한 지역학, 알고 싶은 지역학」, 『역사비평』 137, 역사비평사, 2021, 175쪽.

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2. 미국 내 지역학 제도화의 기원: 미국동양학회와 태평양문제연구회

지금까지 발표된 미국에서의 한국학 기원과 발전에 관한 논문들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동양학회와 태평양문제연구회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이 단체들들은 거의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 한국학, 나아가 동아시아 지역 연구의 시작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 1) 미국동양학회(American Oriental Society)

19세기 초반까지도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동아시아 연구는 유럽에 비해 매우 뒤쳐져 있었다. 1842년에 이르러서야 미국동양학회가 설립되었고 그 이듬해인 1843년 이들의 학회지 『미국동양학회지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가 창간되었다. 이는 미국이 창간은 이전까지 유럽, 특히 프랑스와 영국 주도의 인적 네트워크인 학회와 그 학회에서 발간되는 연구 성과에 의존했던 종속적인 위치를 벗어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창립 초기에는 ‘오리엔탈’ 즉 중동과 동남아 지역의 문자, 문학, 음악, 미술, 불교 등 주로 고전 인문학적 소재들이 주요 관심 대상이었으나, 점차 동아시아 지역과 태평양 연안 지역 등 아시아 전역으로 자신들의 연구 대상을 확장시켰다.<sup>3)</sup>

창립 연도인 1842년부터 1925년(태평양문제연구회가 설립된 해)까지 40여 년간 이 학회의 회원들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미국 동부 지역 보스턴과

3) William Tolbert,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and the Growth of U. S. Empire,” *South Atlantic Review* 86, no. 4, Winter 2021, pp.33~36.

뉴욕을 중심으로 한 개신교 목사, 신학자, 선교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역적으로는 미국 서부, 중국, 일본 등지에서 활동하는, 직업별로는 대학 교수는 물론 정치, 법조,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지도자급 인사들의 이름도 발견된다. UC 버클리의 경우 무려 6명의 교수가 이 학회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미국 서부에서는 유일한 참여 대학이었다.<sup>4)</sup> 특히 이 6명 중에는 중국학자 프라이어(John Fryer, 1839-1928)가 포함되어 있어 주목된다. UC버클리는 1872년 미국 대학으로는 최초로 동아시아 연구만을 위한 아가시석좌교수직(Agassiz Endowed Professorship)을 설치하고 프라이어를 초대 아가시석좌교수로 임명하였다.<sup>5)</sup> UC 버클리 동양언어문학학과(Department of Oriental Languages and Literature)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조선(한국)이 서양 문명과 접촉하게 된 것은 동아시아의 중국과 일본에 비해 훨씬 늦은 편이었다. 따라서 미국인들에게 있어 한국에 대한 정보 역시 상대적으로 미진하였다.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을 계기로 미국 출신 개신교 선교사와 외교관이 밀물처럼 조선에 들어왔다. 이들에 의해 생성된 한국에 대한 기록들은 후에 한국학 연구의 시금석이 되었다. 이렇듯 한국학 태동에 기여한 대부분의 선교사와 외교관은 이 학회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한국에 대한 글을 학회지에 게재하였다. 대표적인 인물로 『은둔의 나라, 조선(Corea, the Hermit Nation)』(1882)의 저자 그리피스(William E. Griffis, 1843-1928)와 1880년대 후반 잠시 주한미국임시대리공사로 근무했던 록힐(William W. Rockhill, 1854-1914)이 있다.

무엇보다도 유럽 각국보다 식민지 전쟁에 비교적 늦게 참여한 미국 정부

4) 회원 명단과 전공은 다음과 같다. 라이더(Arthur W. Ryder, 산스크리트어); 포퍼(William Popper, 아랍어); 휠러(Benjamin I. Wheeler, 언어학); 카노이(Albert J. Carnoy, 신화학); 테가트(Frederick J. Teggart, 도서관학); 프라이어(John Fryer, 중국어).

5) 1872년 기증자(Edward Tomkins)가 당시 \$50,000 상당의 토지를 학교에 기부하면서 석좌교수직은 마련되었지만 1896년에 이르러서야 기증된 토지가 팔리면서 그 기금으로 프라이어가 초대 석좌교수직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Doris Sze Chun, "The Agassiz Professorship and the Development of Chinese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1872-1985," PhD Dissertation, San Francisco, CA, The University of San Francisco, 1986, pp.69~70.

에 있어 이 학회는 대외 정책을 수립하는 ‘두뇌 집단(Think Tank)’ 역할을 담당하였다. 즉, 대외 정책을 수립하는 정치인들과 식민지 개발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경제인들의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이 학회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었다. 현지 경험이 풍부한 선교사들과 그 지역 문헌 자료의 분석이 가능한 학계 전문가(교수)들의 존재는 이 두 집단 사이의 고문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다. 이 학회와 학술지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 2) 태평양문제연구회(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sup>6)</sup>

태평양문제연구회는 미국 내 한국학을 포함한 동아시아학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민간 연구 단체이다. 앞서 언급한 미국동양학회의 설립이 동아시아 연구의 중심지를 유럽에서 미국 대륙으로 이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1925년 태평양문제연구회의 설립은 이를 불가역적인 사실로 확정하였다.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의 패전국들은 전 세계, 특히 아시아 지역 대부분의 식민지들을 포기해야만 했다. 승전국 역시도 전쟁 복구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 정상적인 학문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도 아니었다. 이러한 시기를 틈타 미국 정부는 이제 무주공산이 된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시장 개척에 적극적이었고 이를 실행할 능력 또한 갖추게 되었다.

앞서 언급한 미국동양학회가 ‘고급스럽고(exclusive)’ ‘세련된(refined)’ 유럽 귀족들의 학술 모임을 흉내낸 백인 위주의 모임이었다면, 태평양문제연구회는 아시아 및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현실적인 문제-고상한 인문학적 주제와 아닌-예를 들면 정치 및 외교 현안, 이민법, 위생 문제, 교육 및 계몽 등을 주요 연구 주제로 삼았다. 명칭도 ‘학회(Association 혹은 Society)’ 등을 사용하지 않고 ‘연구회(Institute)’를 사용하여 순수한 민간인 주도의 국제 학술 단체의 성격을 표방하였다. 또한 당시 미국 연방에 가입도 되지 않았던

6) 이 연구회의 이름은 동아시아 3개국이 달리 표기하고 있어 혼동의 우려가 있다. 한국에서는 주로 “태평양관계연구소,” 중국에서는 “태평양국제학회,” 일본에서는 “태평양문제조사회”로 통용되고 있다.

태평양 한복판의 하와이에 연구회의 본부를 둬으로써, 아시아 및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연구자와 사회 지도층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단체의 재정 지원 대부분은 미국 정부와 기업들이 설립한 자선 재단들이었고 대다수의 임원들은 미국인이었다.

태평양문제연구회에 대한 국내 연구는 비록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다소 늦게 시작되었으나 그것의 설립, 조직, 활동, 성격 등에 대한 윤곽은 어느 정도 제시되었다.<sup>7)</sup> 그러나 이 논문들은 모두 이 연구회에서 활동했던 조선인의 활동 혹은 조선의 독립 등과 같은 한국과의 연관성에 치중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사실 이 연구회는 조선을 포함한 동아시아 3개국만이 아닌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학과 관련하여 엄청난 양의 지식을 생산하였다. 1925년 하와이 호놀룰루의 창립회의부터 1958년 파키스탄 라호르에서 마지막으로 열렸던 회의까지 무려 30여 년간 13번의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 총회의 결과물들은 미국 시카고대학교 출판부를 통해 자료집 형태로 발간되었다. 또한 총 1,000종에 이르는 소책자와 소논문 그리고 9종의 정간물을 발간하였다.

태평양문제연구회 회원들 중에는 미국동양학회 회원들과 비교해서 대학 교수가 월등히 많았다. 이 연구회는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모든 참여 국가에 지부를 두었는데 미국 서부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지부(San Francisco Bay Region Division)를 두었다. 이는 샌프란시스코가 당시만 해도 서부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도시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UC 버클리의 교수들이 이 연구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sup>8)</sup> 특히 한국학

7) 고정휴, 『태평양문제연구회 조선지회와 조선사정연구회』, 『역사와 현실』 6, 1991; 고정휴, 『식민지 시대 미국 지식인의 한국 문제 인식-태평양문제연구회(IPR)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58, 2005; Ko Jung-Hyoo, "The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and the Korean Problem During the Pacific War," *Acta Koreana* 17, no. 1, 2014, pp.429~53; 김정일, 『식민지시기 국제민간기구의 내용과 성격: 태평양문제연구회(IPR)와 태평양회의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9, 2002; 박선영, 『미국에서 본 동아시아』, 『中國史研究』 81, 2012; 박선영, 『청과 방패의 딜레마 1929년 제3회 IPR 회의의 만주논쟁』, 『中國史研究』 98, 2015; 박선영, 『아시아·태평양학의 형성과 발전: IPR지역학의 연계성』, 『中國史研究』 104, 2016.

8) UC버클리 교수중에서 대표적인 인물로 바로우(David P. Barrows, 인류학); 캠벨(William W. Campbell, 천문학); 맥러플린(Emma M. McLaughlin, 물리학); 스프라울(Robert G. Sproul, 공학) 등이 있다. 이 4인은 모두 UC 버클리 총장 출신들로 캠퍼스 내에 그들의 이름을 딴 건물들이 있다. "Council Interest: The American Group," *Pacific Affairs* 1, no. 4, September 1928, pp.16~

과 관련해서는 뒤에서 다룰 UC 버클리 최초의 한국학 교수 맥쿤(George M. McCune, 1908~1948)과 정치학과 교수 스칼로피노(Robert A. Scalapino, 1919~2011)의 이름이 눈에 띈다. 맥쿤이 생전에 남겼던 유일한 책, 『오늘날의 한국(Korea Today, Harvard University Press, 1950)』는 이 연구회의 후원으로 출판되었다.<sup>9)</sup> 또한 이 학회의 핵심 정간물이었던 『극동 서베이(Far Eastern Survey)』가 폐간되자 스칼로피노는 UC 버클리 동아시아연구소로 발간의 주관을 옮기는 것을 주도하였으며, 자신이 직접 편집 주관을 맡아 『아시안 서베이(Asian Survey)』라는 이름으로 이 연구회의 명맥을 이었다.<sup>10)</sup> 이 학술지는 현재에도 계속 발간되고 있다.

20세기 전반 미국에서 동아시아학 성장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태평양문제 연구회는 1960년을 끝으로 해산하였다. 이후 각 대학에서는 이 연구회에서 활동했던 연구자들을 영입하여 동아시아 연구소와 학과들을 설립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하와이주립대학교의 동서센터(The East-West Center)이다. 미 의회의 지원으로 설립된 이 센터가 밝히고 있는 설립 목적은 태평양문제연구회의 그것과 거의 일치한다. 또한 이 연구회의 회원들은 아시아학회(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이전 명칭 Far Eastern Association)에 그대로 흡수되었다.<sup>11)</sup> 현재 세계적으로 약 7,000명의 회원을 보유한 이 아시아학회를 통해서 미국은 여전히 아시아·태평양 지역 연구의 지배력을 공고하게 지속하고 있다.

---

19 참조.

- 9) 실제 이 책은 맥쿤이 초고를 작성하고 사망한 지 3년이 지난 후에 그의 부인과 동료가 편집하여 간행되었다. 이 책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김서연, 『미국 '제1세대 한국학자'의 해방 전후 한국 인식 -조지 맥아피 맥쿤의 *Korea Today*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58, 2020.
- 10) Paul F. Hooper, "The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and the Origins of Asian and Pacific Studies," *Pacific Affairs* 61, no. 1, Spring 1988, p.121.
- 11) Earl H. Pritchard, "The Foundations of the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1928 - 48,"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22, no. 4, August 1963, pp.513~23.

### 3. 미국 내 지역학 제도화의 정착: 태평양 전쟁(1941-1945)과 베트남 전쟁(1955-1973)

#### 1) 태평양 전쟁

20세기 전반기에 들어서 1927년 중국내전,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등으로 이어지는 동아시아 지역의 격변으로 인하여 미국 학계에서는 중국과 일본에 대한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태평양 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동아시아학은 여전히 미국 학계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었으나, 1941년 일본의 진주만 폭격으로 학계를 포함한 미국 내의 모든 상황은 달라졌다. 국가 안보와 군사 방어 전략 차원에서 동아시아 언어, 특히 아직까지 중국어에 비해 미진했던 일본어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전까지 미국 주류 학계 — 예를 들면 미국예술과학아카데미(American Academy of Arts and Sciences, 1780년 설립) — 에서 학문적인 체계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받았던 ‘주변인’ 동양학자(Orientalists)들은 이제 역사학자, 언어학자, 지리학자, 정치학자 등 사회과학 연구의 ‘주인공’으로 신분 변화를 겪게 된다.

미국 내 동아시아 연구의 확대, 특히 UC 버클리에에서의 동아시아학 발전과 깊은 인연이 있는 미해군일본어학교(U.S. Navy Japanese Language School)가 이때 설립되었다. 이 학교는 미국과 일본 당국의 합의하에 미 해군을 대상으로 3년간의 일본어 교육 과정을 일본의 수도 도쿄에 1908년 처음 개설되었다.<sup>12)</sup> 그러나 1940년에 들어서면서, 일본과의 외교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전쟁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미국 정부는 도쿄에 있던 이 학교의 미국 본토 이전을 결정하였다. 1941년 해군은 2개 대학 — 서부의 UC 버클리와 동부의 하버드대학교 — 을 선정하여 해군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일본어 학교를 한시적으로 시범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교육 기간은 3년에서 1년으

12) Katherine W. Bresee, “The Navy Japanese Language School (1942–1946): Transformations of Perceptions through Language Study,” MLS Thesis, Boulder, CO,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2009, p.37.



로 단축하였다. 또한 해군은 이 두 대학에 수강생들의 수업료를 지급하고 대학들은 이 기금으로 일본어 교육을 위한 강사를 채용하였다. 고용된 강사들은 비록 대학 소속의 교직원이지만, 강의 내용에 있어서는 해군이 요구한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만 했다. 한 기록에 따르면, 진주만 공습 직후인 1942년 2월 22일, 해군 본부는 47명의 장교들을 UC 버클리에 파견하여 집중적인(intensive) 일본어 교육을 위탁하였다.<sup>13)</sup> 이를 위해서 UC 버클리는 한국계 미국인들을 포함한 일본어 강사들을 추가로 고용하였다.

한편 1942년 2월 19일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1882-1945) 대통령은 행정 명령 9066호(Executive Order 9066) — 국가 안보에 위협으로 간주되는 모든 사람들(일본, 독일, 이탈리아계 미국인)을 서부 해안에서 더 내륙에 있는 ‘이주 센터(relocation camp)’ 로 강제 이주 — 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UC 버클리에 있던 미해군일본어학교는 중부인 콜로라도주 볼더시에 위치한 콜로라도주립대학교로 이전하였고, 재계약 평가에서 저조한 점수를 받은 하버드대학교의 일본어 학교는 전격 폐지되었다.<sup>14)</sup> 이전 당시 UC 버클리 일본어 학교 운영 책임자는 파파르(Florence W. Farquhar, 1895~1946)였는데 그녀는 이 학교가 콜로라도주로 이전한 후에도 계속해서 책임자로 근무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UC 버클리에서 근무하던 대부분의 일본어 강사 역시 콜로라도주로 함께 이주하였다.<sup>15)</sup> 이 학교는 이때 (1942년)부터 태평양 전쟁이 끝난 이듬해인 1946년까지 운영되었다.

미해군일본어학교 지원자들과 심사를 통과하여 실제 참여했던 구성원들을 살펴보면, 1941년 9월부터 1944년 6월까지 총 8,000여 명의 지원자중 915명만이 합격할 정도로 입학 경쟁이 치열했다.<sup>16)</sup> 이들 중 대다수는 19~23세

13) James C. McNaughton, *Nisei Linguists: Japanese Americans in the Military Intelligence Service During World War II*, Washington, D. C.: Department of the Army, 2006, p.58.

14) “JLS/OLS - Guide - 6,” U.S. Navy Japanese/Oriental Language School Collection,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Boulder, CO.

15) David M. Hays, “Words at War: The Sensei of the US Navy Japanese Language School at the University of Colorado, 1942-1946,” *Discover Nikkei*, April 10, 2008, <http://www.discovernikkei.org/en/journal/2008/4/10/enduring-communities/>.

16) “General Statistics (Japanese Course) Covering the Period September, 1941 - June 1944,” Box 29, Folder 2, Navy School of Oriental Languages History, Organization, & Administration

(48%)로, 대학교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았으며(46%), 군대 경험이 없는 수강생들(38%)이었다. 이는 UC 버클리에서 운영하던 현역 장교들만을 위한 프로그램과는 달리, 콜로라도주로 이주한 후에는 전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역 해군이 아니더라도 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수강생들 중에는 외국 태생(12%)이거나 동아시아 지역에서 태어나거나 살았던(17%) 수강생들도 포함되어 있었다.<sup>17)</sup>

General Statistics  
(Japanese Course)

Covering the period September, 1941 - June, 1944

I. Enrollments	
Total enrollment.....	8,000
Applicants interviewed.....	7,500
Enrollment per day on 10/15/41.....	24
Students retained to 6/30/44.....	212
II. Age of Students	
Age 19 - 25.....	400
Age 26 - 30.....	300
Age 31 - 35.....	140
Age 36 & over.....	80
Average age.....	25 yrs.
III. Education	
No college degree (B.A. & B.S. college).....	200
Undergraduate degree only.....	400
Graduate degree (M.A., Ph.D., M.S., M.B.A., M.P.A.).....	300
Full State Support.....	300
IV. Previous Experience	
A. Occupations	
Student.....	340
Government.....	140
Teacher.....	130
Business.....	200
Army.....	70
Naval.....	10
Domestic.....	10
Law.....	0
Journalism.....	0
Marine Corps.....	0
B. Experiences	
Foreign travel.....	120
Work or lived in Far East.....	170
Previous Military Experience.....	200
C. Do Navy men apply?	
Included 1940.....	25
Continued 1941.....	25

-2- APPENDIX (A1)

General Statistics  
(Continued)

V. General Background	
A. Citizenship	
U.S. born.....	140
Foreign born.....	140
B. Nationality	
U.S. citizen.....	140
Foreign citizen.....	140
C. General Background	
U.S. born.....	140
Foreign born.....	140
D. General Background	
U.S. born.....	140
Foreign born.....	140
E. General Background	
U.S. born.....	140
Foreign born.....	140
F. General Background	
U.S. born.....	140
Foreign born.....	140
G. General Background	
U.S. born.....	140
Foreign born.....	140
H. General Background	
U.S. born.....	140
Foreign born.....	140
I. General Background	
U.S. born.....	140
Foreign born.....	140
J. General Background	
U.S. born.....	140
Foreign born.....	140
K. General Background	
U.S. born.....	140
Foreign born.....	140
L. General Background	
U.S. born.....	140
Foreign born.....	140
M. General Background	
U.S. born.....	140
Foreign born.....	140
N. General Background	
U.S. born.....	140
Foreign born.....	140
O. General Background	
U.S. born.....	140
Foreign born.....	140
P. General Background	
U.S. born.....	140
Foreign born.....	140
Q. General Background	
U.S. born.....	140
Foreign born.....	140
R. General Background	
U.S. born.....	140
Foreign born.....	140
S. General Background	
U.S. born.....	140
Foreign born.....	140
T. General Background	
U.S. born.....	140
Foreign born.....	140
U. General Background	
U.S. born.....	140
Foreign born.....	140
V. General Background	
U.S. born.....	140
Foreign born.....	140
W. General Background	
U.S. born.....	140
Foreign born.....	140
X. General Background	
U.S. born.....	140
Foreign born.....	140
Y. General Background	
U.S. born.....	140
Foreign born.....	140
Z. General Background	
U.S. born.....	140
Foreign born.....	140

-3- APPENDIX (A1)

(사진 -1) 미해군일본어/동양어학교 (U.S. Navy Japanese/Oriental Language School Collection) 문서

콜로라도주로 옮긴 이후의 수강생들의 명단을 살펴보면, 이 학교가 UC 버클리의 한국학은 물론 동아시아학 발전에 절대적 기여를 했던 인적 자원의 발원

University of Colorado - Part II Appendices, U.S. Navy Japanese/Oriental Language School Collection,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Boulder, CO.  
 17) "General Statistics (Japanese Course) Covering the Period September, 1941 - June 1944," Box 29, Folder 2, Navy School of Oriental Languages History, Organization, &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Colorado - Part II Appendices, US Navy Japanese/Oriental Language School Collection,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Boulder, CO.

지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학의 로저스(Michael C. Rogers, 1923~2005)와 스칼로피노가 이곳 출신이다. 맥컬로(Helen C. McCullough, 1918~1998; 일본 고전문학), 스미스(Thomas C. Smith, 1916~2004; 일본사, 포드석좌교수), 해밀턴(Charles E. Hamilton; 1913~2002, 동아시아도서관장) 등 동아시아학과 직접 관련된 교수들도 포함되어 있다.<sup>18)</sup>

이렇듯 UC 버클리 동아시아학과는 태평양 전쟁과 함께 급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집중적인 어학 과정이 신설되고, 러시아를 포함한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 지리, 문화 등에 대한 강좌들도 연달아 개설되었다. 이러한 수업을 통해서 수강생들, 특히 미국 정부의 위탁 교육을 받는 현역 군인들과 입대 예정자들은 동아시아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효과적으로 획득할 수 있었다. 태평양 전쟁이 끝날 무렵 이 강좌들의 대부분은 학교 정규 교육 과목으로 편성되었다.

## 2) 베트남 전쟁

20세기 후반 베트남에서 발발한 전쟁은 남북간의 내전임과 동시에 냉전 시대에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한국전쟁에 이어 또 다시 맞붙은 국제전이였다. 베트남 전쟁을 계기로 미 의회는 1958년 국가방위교육법(National Defense Education Act of 1958)을 의결하고 이전까지 각 주에 일임했던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연방 정부 차원에서 통합 관리 및 육성하기 시작하였다. 1964년에는 이 법안의 후속 조치인 타이틀 6(Title VI)가 제정되었다. 타이틀 6는 미국 교육부의 지원을 받는 모든 프로그램, 예를 들면 대학 연구소, 도서관, 박물관 등에서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제외되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행위를 법률로 금지하는 조치였다. 이로써 미국 대학 내 지역학(Area Studies) 연구소 설립과 기존의 지역학 전문 도서관 운

18) 이 밖에도 메이스(Henry F. Mays, 1915~2012, 지성사); 맥린(Hugh McLean, 1925~2017, 러시아 문학); 말리아(Martin E. Malia, 1924~2004, 러시아 역사); 빌러(Madison S. Beeler, 1910~1989, 언어학) 등의 이름도 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The Interpreter*, March 1, 2008, University of Colorado at Boulder Libraries, The US Navy Japanese/Oriental Language School Archives.

영을 위한 연방 정부차원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마련되었다.<sup>19)</sup>

이를 근거로 UC 버클리에 동아시아국가자원센터(East Asia National Resource Center)가 설치되었다. 이 센터의 목적은 분명하다. 국가 전략 차원에서 주요한 국가(예를 들면 당시 소련과 중국) 혹은 지역(중동) 언어 교육을 강화하고, 해당 지역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전공 과목을 개설하여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며, 해당 지역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었다.<sup>20)</sup> 이 센터의 설립으로 UC 버클리 내 이미 설립되어 있었던 동아시아연구소(1949년 설립), 러시아 및 동유럽연구소와 중국학센터(1957년 설립), 일본학센터(1958년 설립) 등이 동아시아국가자원센터 아래로 편제 개편되었다. 특히 일본학센터는 1964년 한국을 포함시켜 일한공동센터(Joint Center for Japanese and Korean Studies)로 확대되었다. 이 때까지도 한국학의 위상은 미국 정부나 학교 혹은 여러 사회 조직 구조에서 ‘동아시아학’이라는 범주 아래 중국과 일본의 하위 조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일본학센터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한국학센터가 생긴 것은 1979년의 일이다.

냉전의 긴장과 베트남 전쟁은 지역학 연구에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과거 각 국가별로 분리하여 근대 이전 시기에 집중했던 연구 방식을 지역별 그룹 단위 즉 동아시아지역주의의 현안 연구로 전환하였다. 둘째, 과거 고전 인문학 중심의 연구에서 사회과학(특히 정치와 경제) 분야에 보다 치중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셋째, 지역학을 위한 연구 기금의 공급원을 미국 연방 정부(교육부)가 통합 관리하고 민간 차원에서의 재정 지원도 적극 장려하였다. 록펠러재단(Rockefeller Foundation), 포드재단(Ford Foundation), 멜론재단(Mellon Foundation), 루스재단(Henry Luce Foundation) 등이 이에 해당된다.

20여 년에 걸친 지루한 전쟁은 1975년 남부 사이공(지금의 호치민시)의

19) “International Education at Berkeley - The Role of Title VI Support,”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Research, <https://vcresearch.berkeley.edu/international/international-education-berkeley-role-title-vi>

20) “East Asia National Resource Center,” Berkeley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https://ieas.berkeley.edu/east-asia-national-resource-center>

합력으로 북부 공산주의 진영의 승리로 끝을 맺었다. 전쟁이 끝나자 연방 정부는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 일정 부분 해소되었다는 판단 아래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액하였던 지역학 연구 지원금을 다른 영역으로 전환하였다. 즉, 연구중심대학에서 교육중심대학으로, 고등교육에서 초등, 중등교육으로 지원금을 배부하였다. 주요 자선 단체들의 자금 지원 역시 축소되었다. 이러한 정책 변화의 조짐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한때 13,940만 달러까지 이르렀던 교육부의 타이틀 6기금은 닉슨 행정부(1969~1974)가 들어서면서 1,000만 달러대로 삭감되었다.<sup>21)</sup>

#### 4. UC 버클리의 한국학 연구자들

##### 1) 20세기 중반: 최봉윤과 조지 맥아피 맥쿤

1943년 미국 내 제도권 대학에서는 최초로 UC 버클리에 한국어 수업이 개설되었다.<sup>22)</sup> 최봉윤(Bong Youn Choy, 1914~2005)이 첫 한국어 강사였다.<sup>23)</sup> 최봉윤의 삶은 그의 자서전 제목 『떠도는 영혼의 노래』(1986)처럼 동아시아 현대사 그 자체였다. 1914년 평안북도 의주 개신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평양숭인상업학교를 졸업하고 1935년 일본 도쿄에 위치한 아오야마가쿠

21) "The History of Title VI and Fulbright-Hays: An Impressive International Timeline," U. S. Department of Education, January 21, 2011, <https://www2.ed.gov/about/offices/list/ope/iegps/history.html>.

22) 대학교가 아닌 민간 단체—특히 교회 중심의—에서의 한글 수업은 이전부터 있었다. 태평양전쟁 전후 한국어 강의를 개설한 UC 버클리 외 3개 대학의 경우를 살펴보면, 워싱턴주 시애틀에 위치한 워싱턴주립대학교는 1943년 선우학원(영어명: Harold Hak Won Sunwoo; 1918~2015)이 육군을 위한 한국어 강의를 시작했다. 하와이주립대학교는 1946년 박관두(영어명: Park Kwandu, 생몰년도 미상)가 시간강사 신분으로 한국어 강의를 개설하였다. 하버드대학교의 경우, 1952년 서두수(영어명: Suh Doo Soo, 1907~1994)에 의해 첫 한국어 수업이 이루어졌다. 미국 내 한국어 강의에 대한 역사는 Hye-sook Wang, ed., *Rise of Korean Language Programs in U. S. Institute of Higher Education: A Narrative History* (Seoul, Korea: Korea University Press, 2015) 그리고 Clare You, *The Spread of the Korean Language: Through the Korean Diaspora and Beyond* (Berkeley, CA: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2018)를 참조.

23) John Lie, "The Tangun Myth and Korean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Transnational Asia* 1, no. 1, December 2016, <https://transnationalasia.rice.edu/index.php/ta/article/view/13>: 5-7.

인대학교(靑山學院大學)에서 3년간의 유학 생활로 그의 “떠도는” 삶은 시작되었다.<sup>24)</sup> 1938년 일본 정부가 발행한 정상 여권이 아닌 여행허가증으로 미국으로 건너왔다.

미국 이민 초기 4년간은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에 위치한 대학에서 학부과정을 이수하는 한편 여러 한인단체에서 활동하였다. 1942년 샌프란시스코로 이주, UC 버클리의 일본어 강사 신분으로 채용되었으나, 이듬 해부터 한국어도 함께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 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과정을 병행하기도 하였다.<sup>25)</sup> 그 무렵,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고 미군정이 설치되었던 1946년부터 1948년까지 최봉운은 한국으로 돌아가 미군정 공보국에서 일하면서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 강의를 하기도 하였다. 이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약 4년간 워싱턴주 시애틀 생활을 거쳐 1952년 UC 버클리의 정치학과 박사 학위과정에 진학은 했지만 실제 박사 학위는 취득하지 못했다.<sup>26)</sup> 이때를 전후하여 공산주의 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기도 했다.<sup>27)</sup> 공산주의자라는 낙인 때문이었는지 그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지 못했고 여러 대학에서 강사의 신분으로 한국 관련 수업을 한 흔적은 있다. 또한 남북통일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통일을 염원하는 한반도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한 탓에 사망할 때까지 끝내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모두는 파편적인 기록들뿐이다. 그가 UC 버클리에서 강의를 했던 시기도 4~5년에 불과하다.

이렇듯 평생 학자로서의 명성은 얻지 못했지만, 최봉운은 미국에서의 한국

24) 일제강점기 조선 평양 숭인상업학교에서 일본 도쿄 아오야마학원으로, 이후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이어지는 당시 조선인들의 학맥은 한국내 개신교 초기 한국인 지도자, 재일 공산주의 지식인, 재미 한인이민사 등의 주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25) 최봉운이 UC 버클리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한 연도에 대해서는 잘못된 정보가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하지만, 최봉운은 자신의 자서전에서 시작 연도가 1942년이 아니고 1943년 봄학기부터 라고 밝히고 있다. 최봉운, 『떠도는 영혼의 노래』, 동광출판사, 1986, 90쪽.

26) 최봉운의 자서전에는 박사학위에 대한 언급이 없다. 최봉운이 취득했다고 알려져 있는 박사학위는 명예박사학위일 가능성이 크며, 수여학교인 “세계대학교 (World University)” 역시 학교에 대한 정보는 확인되지 못했다. 이계상 편, 『샌프란시스코지역과 한인들』 vol.1, 샌프란시스코편찬위원회, 2004, 285쪽.

27) Bill Ong Hing, *Defining America Through Immigration Policy*, Philadelphia, PA: Temple University Press, 2003, pp.79~81.

학에 의미있는 3권의 저술을 남겼다. 우선 미국 한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이전의 한글 교재와는 달리 최봉윤이 쓴 한글 교과서는 미국에서는 최초의 대학생용 교재이다.<sup>28)</sup> 1943년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출판부에서 발간된 이 교재는 오랫동안 1권만이 UC 버클리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었는데 최근 하와이대학교에서 3권으로 된 완질이 발견되었다. 다음으로 그는 1971년 『한국사(Korea: A History, Charles E. Tuttle Co.)』를 저술하였다. 이 책이 출판되기 전까지는 1905년 서울에서 출판된 헐버트(Homer B. Hulbert, 1863~1949)의 『한국사(The History of Korea, Methodist Publishing House)』를 1962년 워즈(Clarence N. Weems, 1907~1996)가 전면 개정, 편집하여 출판한 책 그리고 하타다 다카시(旗田巍, 1908~1994)의 『朝鮮史(岩波書店, 1951)』를 영어로 번역한 책, 단 2권만이 미국 내 대학교의 한국 역사 교재로 사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최봉윤의 『한국사』는 미국에서 한국인에 의하여 쓰인 최초의 한국사 교과서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1979년에 쓴 『미국 속의 한국인(Koreans in America, 한국어 번역본, 종로서적, 1983)』이 있다. 이 책은 현재까지도 미국 한인 이민사를 다룬 연구서에서 빠지지 않고 인용된다.

맥쿤은 구한말 평안도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미국 선교사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 개신교 역사를 공부하는 연구자들에게는 비교적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sup>29)</sup> 그러나 그의 생애가 너무 짧았던 탓에 그의 한국학 관련 연구 업적이나 공헌은 기회가 그리 많지 못했다.

맥쿤의 어린 시절은 평양에서 보내고 고등교육은 미국에서 받았다. 1936년부터 1941년까지 UC 버클리 동아시아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한국(조선)의 대중, 대일 외교관계를 주제로 학위를 취득하였다. UC 버클리에서 한국을 주제로 한 박사학위로서는 두 번째 논문이었다.<sup>30)</sup> 흥미롭게도 맥쿤

28) 윤금선, 『최봉윤의 국어 교과서 연구』, 『어문연구』 97, 2018, 256쪽. 이 외에도 윤금선의 논문 『재미한인의 국어교육 기관과 국어 교과서 연구: 일제강점기 미주 본토 지역을 중심으로』, 『배달말』 55, 2014 참조.

29) 맥쿤에 대한 연구는 김서연, 『조지 맥쿤(George M. McCune)의 생애와 한국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6; 김서연, 앞의 논문(2020) 참조.

30) 첫 번째 논문은 1931년 Harold J. Noble, *Korea and Her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Before 1895*.

은 박사 과정 중에 당시 하버드대학교에서 일본 역사를 공부하던 같은 박사 과정생 라이샤워(Edwin O. Reischauer, 1910-1990)와 함께 한글의 영문표기법(McCune-Reischauer Romanization System)을 개발하였다. 이 표기법은 현재까지도 미국은 물론 영미권 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다. 이때가 1939년의 일이다. 4,00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미국의 서부와 동부에 있던 두 박사과정생들이 어떻게 이 표기법을 공동으로 만들었을까에 대한 해답은 김서연의 논문에서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다.<sup>31)</sup> 실질적으로 이 표기법은 맥쿤이 혼자서 만들었고, 라이샤워는 1939년에 자신의 박사학위논문에서 이 표기법을 처음으로 적용했다는 것이다.<sup>32)</sup> 이 표기법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 정부, 특히 육군이 사용하는 한반도 지도상의 각 지역명은 이 표기법에 의거하여 작성했다는 점이다. 이 표기법은 현재에도 미국 정부 공식 문서에 적용되고 있다.

맥쿤은 1939~1946년 로스엔젤레스에 위치한 명문 사립대 옥시덴탈대학에서 역사학 교수로 근무하던 중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 정보 당국에서 사회과학분석관(Social Science Analyst)으로 군복무를 대신하였다.<sup>33)</sup> 1946년 드디어 자신의 모교인 UC 버클리 역사학과 시간강사 신분으로 채용된 후 1948년 부교수로 승진하였다. 이때 맥쿤은 1947년 설립된 UC 버클리 동아시아도서관의 한국어 자료 수집에도 깊이 관여하였다. 특히 이 도서관에는 아사미문고(Asami Collection)라 불리는 4천여 책의 한국 고전적이 소장되어 있다. 이 문고가 조선(한국)에서 출판된 책들이 일본과 태평양을 거쳐 미국 UC 버클리로 오게 된 과정에는 맥쿤의 역할이 매우 컸다. 일본 전범 기업인 미쓰이사의 미쯔이문고(Mitsui Collection)의 일부였던 이 문고는 당초 UC 버클리의 구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하지만 조선 시대의 역사에 관심이 많았던 맥쿤은 1930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에서 영인한 조선왕조실록 완질이

31) 김서연, 앞의 논문(2016), 21쪽.

32) Edwin O. Reischauer, "Nittō Guhō Junrei Gyōki: Ennin's Diary of His Travels in T'ang China (838-847)," Ph.D Dissertation, Boston, MA, Harvard University, 1939.

33) "George McAfee McCune, History: Berkeley," University Archives, The Bancroft Library,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CA, <http://texts.cdlib.org/view?docId=hb9p300969&doc.view=frames&chunk.id=div00017&toc.depth=1&toc.id=>, accessed 21 July 2022.



이 문고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학교 당국에 이 문고의 구입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이다.<sup>34)</sup> 1948년 시작된 이 구입 협상은 1950년 가을이 되어서야 종결되었다.

맥쿤은 UC 버클리 교수가 된 지 3년 만에 40세의 나이에 지병인 만성 심장 질환으로 사망하였다. 물론 역사에는 가정이란 없다. 하지만 만약 맥쿤이 사망하지 않고 이 학교에 계속 근무하면서 한국학 연구를 지속했다라면 중국학 대부로서 세계적 명성을 얻은 하버드대학교의 페어뱅크(John K. Fairbank, 1907~1991)와 일본학의 라이샤워와 함께 한국학의 대부가 되었으리라 믿는다. 불행 중 다행으로 맥쿤은 한 명의 제자를 남기는데 그가 바로 로저스다.

## 2) 20세기 후반: 마이클 코트니 로저스와 로버트 안토니 스칼로피노

UC 버클리에서 30년 이상 동아시아학과 교수로 재직한 로저스(Michael Courtney Rogers, 1923~2005)는 한국에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이다. 하지만 그의 삶은 태평양 전쟁 이후 미국 내 한국학 형성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태평양 전쟁을 전후로 UC 버클리 동아시아학과에서는 미국 전쟁부(Department of War)의 지원으로 8개의 아시아 언어(북경어, 티베트어, 만주어, 몽골어, 일본어, 한국어, 말레이어, 산스크리트어) 교육과 그 지역 역사 및 문화 관련 수업들이 개설되었다.<sup>35)</sup> 이러한 강의들은 현역 군인들에 대한 교육 목적뿐만 아니라 수강생들로 하여금 자원 입대를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이러한 지원으로 인해 실제 많은 참전 군인들이 전후 학교에 복귀하여 동아시아학과 박사 과정에 진학하였다.

로저스는 후자에 해당된다. 그는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샌디에이고주립 대학교에서 라틴어와 프랑스어를 공부하고 1942년 UC 버클리로 편입해서는 동양 언어를 전공하였다.<sup>36)</sup> 당시 학부생임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학과 이가

34) Roger Sherman, "The Acquisition of the Mitsui Collection by the East Asiatic Librar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MLS Thesis, Los Angeles, CA,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1980.

35) Doris Sze Chun, Op. cit.(1986), pp.237~238.

시석좌교수였던 레싱(Ferdinand D. Lessing, 1882~1961)이 정부의 지원(타이틀 6 기금)으로 진행하고 있던 최초의 영어-몽골어 사전 편찬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 사전은 기존에 미 개신교 선교사와 미 육군부가 발간했던 실용 몽골어 단어장 수준이 아니고,<sup>37)</sup> 무려 18년에 걸쳐 1천쪽 분량으로 만든 대형 학술용 사전이었다.<sup>38)</sup>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1944년 로저스는 UC 버클리를 졸업하고 콜로라도주립대학교 미해군일본어학교에 진학하여 추가 교육을 받았다. 이후 미 해병대에 입대, 남태평양의 오키나와와 중국 등지에서 일본군 문서를 번역 혹은 통신문을 해독하는 일을 전담하였다. 전쟁 포로를 심문하는 것 역시 그의 주요 임무였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1946년 로저스는 UC 버클리로 돌아와 동아시아학과 박사과정에 진학하게 된다.<sup>39)</sup>

로저스는 학부 시절 앞서 살핀 최봉윤에게 한국어 수업을 받았고 박사 과정 때는 이제 막 교수로 부임한 맥쿤으로부터 한국어 강의를 들었다. 또한 중국어와 티베트어 공부를 위해서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 중국과 티베트를 여행하기도 했는데, 티베트에서는 7개월간 불교 사원에 머물면서 현지어를 익혔다. 이렇게 동아시아 3개 언어를 익힌 그는 1953년 박사 학위를 마치자마자 UC 버클리 교수로 임용되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를 동시에 가르쳤다.

따라서 로저스는 한국학자라기 보다는 동아시아 언어를 공부한 언어학자에 가깝다. 그가 발표한 논문들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

36)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Michael Rogers, UC Berkeley professor emeritus who helped with first Mongolian-to-English dictionary, dies." UC Berkeley press release, [https://www.berkeley.edu/news/media/releases/2005/05/24\\_rogers.shtml](https://www.berkeley.edu/news/media/releases/2005/05/24_rogers.shtml), accessed 21 July 2022.

37) Matthew Haltod, *Mongol-English Practical Dictionary with English Word Reference List*, Chicago, IL: Evangelical Alliance Mission, 1953; D. A. Troxel, *Mongolian Vocabulary: Modern Khalkha Language: Mongolian-English, English-Mongolian*, Issue 537 of Department of the Army Technical Manual, Department of the Army, 1953.

38) Ferdinand D Lessing, *Mongolian-English Dictionary*, Berkeley,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0.

39)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Michael Rogers, UC Berkeley professor emeritus who helped with first Mongolian-to-English dictionary, dies." UC Berkeley press release, [https://www.berkeley.edu/news/media/releases/2005/05/24\\_rogers.shtml](https://www.berkeley.edu/news/media/releases/2005/05/24_rogers.shtml), accessed 21 July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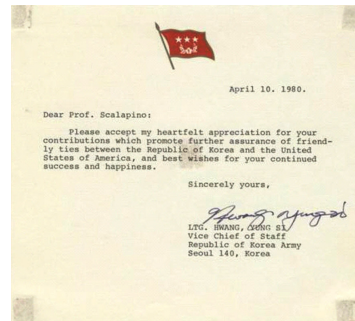
구하고 로저스를 한국학 연구자 범주에 넣은 이유는 그의 제자들 때문이다. 그가 교수가 된 이후(1953년)부터 1980년대 말까지 한국학을 주제로 UC 버클리에 제출된 박사학위논문 24편 중 총 9편에서 로저스의 이름이 지도교수로 등재되어 있다. 그중에는 뉴욕 콜럼비아대학교에서 많은 한국학자를 배출한 레드야드(Gary K. Ledyard, 1932~2021)와 한국인 손보기(Pow Key Sohn, 1922~2010)가 포함되어 있다.

로저스가 거의 소개되지 않은 인물이라면 스칼로피노는 한국학계에 너무나 잘 알려진 인물이다. 이 두 사람은 박사 학위를 받은 대학교만 다를 뿐 UC 버클리에 교수로 취직될 때까지의 이력은 거의 유사하다. 스칼로피노는 1939년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바라대학(지금의 UC 산타바바라)을 졸업하고 1943년 하버드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다. 이후 1943년부터 1946년까지 콜로라도주 미해군일본어학교를 졸업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하여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였다. 로저스와 마찬가지로 오키나와에서 포로 심문, 일본군 통신문의 해독 등을 전담하였다. 일본이 패망한 후에는 일본 주둔 미군정청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다. 1946년 가을, 다시 하버드대학교에 돌아와 중국학자인 페어뱅크의 지도 하에 2년 만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페어뱅크 역시 2차 대전 중에는 미 정보국에서 근무했던 이력이 있었다. 스칼로피노의 UC 버클리 부임은 1949년의 일이다. 이때부터 1990년까지 41년을 UC 버클리에서 재직하였다.

1960년대 미국에서는 메카시즘 열풍이 불었다. 특히 당시 UC 버클리는 베트남 전쟁 반전 운동, 자유 언론 운동, 좌익 운동 등 진보적 정치 성향을 가진 지식인들의 메카였다. 캠퍼스 내에서는 매일매일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데모의 연속이었고 대통령선거 기간에는 이러한 UC 버클리 문제의 해결 방안이 각 정당의 핵심 공약일 정도였다. 이러한 시기에 40대의 젊은 교수 스칼로피노는 이 학교의 정치학과 학과장이었다. 한때 그는 중국 및 일본의 공산주의자들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공산주의자로 오인을 받기도 했고 베트남의 미국 참전에 간여했다는 이유로 전범이라는 오명을 받기도 했다.<sup>40)</sup> 이처럼 극단의 이념적 대립 시기에 스칼로피노는 미국 정부의 동아시아 외교정

책 전문가로서 최고의 명성을 얻은 한국학자이자 동양학자이다.

한반도와 관련해서 스칼로피노는 남측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 집권층과 미국 정부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sup>41)</sup> 특히 전두환이 1979년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았을 때 스칼로피노는 미국 정부를 대표해서 한국에 특사로 파견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는 북한에도 세 차례나 방문하여 북측 고위 인사들과도 교류하였다. 그의 나이 90세가 되던 해(2008), 그의 회고록이 출판되었고 출판 즉시 동아시아 3개 국어로 번역되었다. 이는 그의 학문적 및 외교적 영향력이 한반도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한국어 번역판의 경우, 그의 제자인 전 외무부장관을 지낸 한승주(1940-현재)가 추천사를 썼다. 한승주 외 대표적인 그의 제자로서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Communism in Korea; 한국어 번역본 돌베개, 1986)』를 쓴 이정식(1937~2021)이 있다.



### 3) 그밖의 인물들

본 논문을 위해서 1868년 개교 이래 1980년까지 한국(인문, 사회과학분야)을 주제로 한 UC 버클리 박사학위논문을 조사하였다.<sup>42)</sup> 아래 표는 그 결

40) 로버트 A. 스칼로피노 지음, 최규선 옮김, 『스칼로피노 교수의 新동방견문록』, 중앙books, 2010, 105~112쪽.

41) 로버트 A. 스칼로피노 지음, 최규선 옮김, 위의 책, 220~223쪽.

42) 조사 기간을 1980년까지 한정된 이유는 이후 취득자들의 대부분은 아직도 현직에 있거나 사회적

과로 얻은 총 24편의 목록이다.

이름	박사학위논문 제목	지도교수 / 전공학과	제출년도
NOBLE, HAROLD JOYCE	<i>KOREA AND HER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BEFORE 1895</i>	(역사학)	1931
McCUNE, GEORGE McAFEE	<i>KOREAN RELATIONS WITH CHINA AND JAPAN, 1800-1864</i>	(역사학)	1941
BARTZ, CARL FREDERICK, JR.	<i>THE KOREAN SECLUSION POLICY 1860-1876</i>	(역사학)	1953
ROGERS, MICHAEL COURTNEY	<i>THE RISE OF THE FORMER CH'IN STATE AND ITS SPREAD UNDER FU CHIEN THROUGH 370 A.D.</i>	(중국학)	1953
LEE, CHONG SIK	<i>THE KOREAN NATIONALIST MOVEMENT, 1905-1945</i>	스칼로피노	1962
HOYT, JAMES	<i>KOREAN LITERATURE: THE RISE OF THE VERNACULAR, 1443-1592</i>	로저스	1962
SOHN, POW-KEY	<i>SOCIAL HISTORY OF THE EARLY YI DYNASTY 1392-1592: WITH EMPHASIS ON THE FUNCTIONAL ASPECTS OF GOVERNMENTAL STRUCTURE</i>	로저스	1963
PALMER, SPENCER JOHN	<i>PROTESTANT CHRISTIANITY IN CHINA AND KOREA: THE PROBLEM OF IDENTIFICATION WITH TRADITION</i>	(역사학)	1964
LEDYARD, GARI KEITH	<i>THE KOREAN LANGUAGE REFORM OF 1446: THE ORIGIN, BACKGROUND, AND EARLY HISTORY OF THE KOREAN ALPHABET</i>	로저스	1966
KIM, JONGBIN	<i>THE KOREAN COTTON MANUFACTURING INDUSTRY</i>	(사회학)	1966
HAZARD, BENJAMIN HAZARD, Jr.	<i>JAPANESE MARAUDING IN MEDIEVAL KOREA: THE WAKO IMPACT ON LATE KORYO</i>	로저스	1967
CHOUGH, SOON	<i>FINANCING OF ECONOMIC DEVELOPMENT IN SOUTH KOREA, 1954-1964</i>	(경제학)	1967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43) 한국에서는 필명 한승조로 알려져 있다. 본명은 한기식.

AHN, SEUNG CHUL	<i>A MONETARY ANALYSIS OF THE KOREAN ECONOMY, 1954-1966</i>	(경제학)	1968
RHA, WOONG BAE	<i>AN APPLICATION OF MATHEMATICAL PROGRAMMING TO THE CHOICE OF INVESTMENTS: THE CASE OF THE ELECTRIC POWER INDUSTRY IN KOREA</i>	(경영학)	1968
JAMIESON, JOHN CHARLES	<i>THE 'SAMGUK SAGI' AND THE UNIFICATION WARS</i>	로저스	1969
KIM, KICHUNG	<i>THOREAU'S INVOLVEMENT WITH NATURE</i>	(언어학)	1969
HAN, SUNGJOO	<i>THE CHANG MYON GOVERNMENT (1960-1961) IN SOUTH KOREA: A CASE STUDY OF FAILURE IN POLITICAL DEMOCRACY</i>	스칼로피노	1970
SMITH, WARREN WILLIAM, JR.	<i>THE RISE OF THE SOWON: LITERARY ACADEMICS IN SIXTEENTH CENTURY KOREA</i>	로저스	1972
HAN, KI-SHIK <sup>43)</sup>	<i>POLITICAL LEADERSHIP AND DEVELOPMENT IN POSTWAR KOREA CONTINUITY AND CHANGE BETWEEN THE RHEE AND PARK REGIMES</i>	스칼로피노	1972
PARK, YONG-SHIN	<i>PROTESTANT CHRISTIANITY AND SOCIAL CHANGE IN KOREA</i>	(사회학)	1975
CHOI, DAI-KWON	<i>LAW AND SOCIAL CHANGE: THE KOREAN EXPERIENCE</i>	스칼로피노	1976
YOON, HONG-KEY	<i>GEOMANTIC RELATIONSHIPS BETWEEN CULTURE AND NATURE IN KOREA</i>	로저스	1976
CHANG, NAMGUI	<i>ASPECTS OF KOREAN DIACHRONIC PHONOLOGY</i>	(언어학)	1978
HWANG, BYUNG TAI	<i>CONFUCIANISM IN MODERNIZATION: COMPARATIVE STUDY OF CHINA, JAPAN, AND KOREA</i>	스칼로피노	1979

이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인 노블의 논문부터 이 학교 출신이자 교수가 된 로저스의 것까지 4편을 제외한 20편의 논문 작성자들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미국 학계에 남아 한국학과 관련된 연구를 계속하면서 한국학 제자들을 배출한 경우이다. 이에 해당하는 학자는 로저스의 제자로서 콜럼비아대학교에서 30년 넘게 재직한 레드야드(1966년 학위자)와

스칼로피노의 제자인 펜실베니아대학교의 이정식(1962년 학위자) 단 2명뿐이다. 미국이나 한국은 아니지만 뉴질랜드의 오클랜드대학교(University of Auckland)에서 아직까지 현역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윤흥기(1976년 학위자)도 로저스의 제자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집단은 미국 정부 혹은 정보 기관에 취직하여 한국 및 동아시아 전문가로 활동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직업 특성상 박사 학위 취득 이후의 행적에 대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사망을 한 후에 배우자의 구술 기록 혹은 당사자의 죽음을 알리는 부음을 통해서 정보 요원 혹은 군인으로 활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로저스의 제자들인 호이트(1962년 학위자), 미국에서는 최초로 삼국사기를 주제로 논문을 쓴 제미슨(1969년 학위자), 한국의 서원을 주제로 학위 논문을 작성한 스미스(1972년 학위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스미스는 박사 과정 중에 하자드(1967년 학위자)와 함께 하타 다카시의 『朝鮮史』를 영어로 번역하였다.

세 번째 집단은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이다. 이들은 이제 막 경제 개발이 시작되던 1960~70년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UC 버클리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한국에 돌아가 각 분야 학계에서 최고의 입지를 다졌다. 특히 이 집단에는 로저스나 스칼로피노로부터 직접 지도를 받은 학생들도 있지만, 다른 사회과학 분야, 즉 언어학, 사회학, 경제, 경영학, 법학 분야에서 한국을 주제로 박사 논문을 작성한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인 인물들로 고고학계의 손보기(1963년 학위자), 사회학과의 박영신(1976년 학위자), 정치학계의 한승주(1970년 학위자)와 한기식(1972년 학위자), 경제, 경영학계의 조순(1967년 학위자), 나웅배(1968년 학위자), 안승철(1968년 학위자), 법학 분야에서는 최대권(1976년 학위자)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 범주에 끼지 못했지만 꼭 언급하고 싶은 인물은 UC 버클리에서 한국학 관련 최초의 박사 학위를 받았던 헤럴드 노블(Harold J. Noble, 1903~1953, 1931년 졸업생)과 언어학을 전공한 김기청(1934~2012, 1969년 졸업생)이다. 우선 노블은 그동안 한국 학계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이다. 다행스럽게도 그에 대한 논문이 최근 1편 발표되었다.<sup>44)</sup> 선교사 2세

었던 노블은 UC 버클리에서 박사과정에 입학하기 전부터 한국 역사, 특히 초기 한미관계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왕립아시아학회 한국지부(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의 학술 활동에도 적극 참여한 기록이 있다. 언어학과의 김기청은 박사 과정 중이던 1966년 산호세주립대학교 영문학과 교수로 채용되어 2002년까지 재직하였다.<sup>45)</sup> 그는 한국 문학 혹은 재미교포의 이민 문학을 많이 연구하였으며, 미국에서 한국 고전 및 현대 문학 작품이 겨우 영어로 번역되기 시작하던 1990년대에 대학 교재용 한국고전문학사를 최초로 집필하였다.<sup>46)</sup>

## 5. 나오며

지금까지 한국학 및 동아시아학의 발전 과정을 UC 버클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들이 평생 일구어 온 공적인 성취와 사적인 사연을 단 몇 줄로 평가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자신의 학문적 경력을 전적으로 한국학에만 의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들과 한국학과의 만남은 아주 복잡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대학교에 진학하여 동아시아 언어를 접하면서 그 지역 문화에 대한 단순한 지적 호기심은 삶과 죽음이 오기는 전쟁들을 현장에서 겪으면서 보다 구체화되고 심화되었다. 제도권에서 제공하는 최고의 학위 과정을 마친 뒤에는 한국학자 혹은 동양학자라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필요에 따라서 미군, 국무부, 정보 기관 등에 동아시아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고도로 훈련된 ‘두뇌 집단’이 되었다. 이러한 기본 구도는 현재에도 변함없이 존재한다. 이제는 오히려 민

44) 이영미, 『미국 최초의 한국사 전공자 해롤드 노블(Harold J. Noble, 1903-1953)의 생애와 한국연구』, 『한국학연구』 64, 2022, 639~667쪽.

45) “Kim, Kichung (1934-2012),” Emeritus and Retired Faculty Biographies, San Jose State University, [https://scholarworks.sjsu.edu/erfa\\_bios/41/](https://scholarworks.sjsu.edu/erfa_bios/41/)

46) Kichung Kim, *An Introduction to Classical Korean Literature: From Hyangga to P'ansori*,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6.



간 자선 재단 혹은 민간 기업까지 참여하여 민(民)-관(官)-산(産)-학(學)이라는 다각적인 관계가 한층 견고해졌다.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학의 발전 과정에서 보이는 정치·사회적, 역사적 특수성에 주목함으로써 필자는 몇 가지 제언을 통해 한국학의 성공적인 미래 발전 가능성을 찾아보고 싶다. 첫째, 더 이상 한국학의 정이나 위상에 대한 논의는 그만 되었으면 한다. 특히 미국의 한국학자들에게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으면 한다. 한국 내의 한국학과 한국 외, 적어도 미국 내의 한국학은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양보할 의사가 없는 한 이러한 논의는 소모적이다. 대신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서로 다른 시각을 인정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한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한국학 연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다.

둘째, 미국에서의 한국학은 그 기원부터 중국 및 일본학과 함께 ‘동아시아학’이라는 넓은 루브릭(rubric) 아래에 항상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 내의 한국학도 지역적, 일국적 연구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넓게 초국가적, 비교학적 렌즈를 통해서 한국학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연구 방식을 통해 중국학이나 일본학 연구자와 보다 쉽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는 텍스트 중심의 단편적인 연구 방식이 아닌 다양한 매체의 연구물과 연구 방식—예를 들면 디지털 인문학/한국학—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이는 비단 한국학뿐만 아니라 모든 인문/사회학 분야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미래의 한국학자들은 텍스트보다는 이미지를 통한 학습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조급함을 벗어나 기초부터 충실한 한국학이 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학의 위상은 미국에서 이미 100년이 넘는 중국학이나 일본학과 대등할 수 없다. 이들은 학문적 전문용어 정이나 필수적인 원문 텍스트의 영어 번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적인 참고 문헌들이 이미 충실히 축적되어 있다. 특히나 인문학은 긴 호흡을 가지고 연구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학은 아직까지 미완성이다.

## ■ 참고문헌

- 고정휴, 『태평양문제연구회 조선지회와 조선사정연구회』, 『역사와 현실』 6, 한국역사연구회, 1991.
- \_\_\_\_\_, 『식민지 시대 미국 지식인의 한국 문제 인식 - 태평양문제연구회(IPR)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58, 한국역사연구회, 2005.
- 권준희, 『알리기 위한 지역학, 알고 싶은 지역학』, 『역사비평』 137, 역사비평사, 2021.
- 김경일, 『식민지시기 국제민간기구의 내용과 성격: 태평양문제연구회(IPR)와 태평양회의를 중심으로』, 『한국 민족운동사연구』 39,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2.
- \_\_\_\_\_, 『한국학의 기원과 계보: 한국과 동아시아, 미국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64, 한국사회사학회, 2003.
- 김서연, 『미국 '제1세대 한국학자'의 해방 전후 한국 인식 - 조지 맥아피 맥쿤의 Korea Today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58,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0.
- 박선영, 『미국에서 본 동아시아』, 『中國史研究』 81, 2012.
- \_\_\_\_\_, 『창과 방패의 딜레마 1929년 제3회 IPR 회의의 만주논쟁』, 『中國史研究』 98, 중국사학회, 2015.
- \_\_\_\_\_, 『아시아·태평양항학의 형성과 발전: IPR지역학의 연계성』, 『中國史研究』 104, 중국사학회, 2016.
- 윤금선, 『재미한인의 국어교육 기관과 국어 교과서 연구: 일제강점기 미주 본토 지역을 중심으로』, 『배달말』 55, 배달말학회, 2014.
- 윤금선, 『최봉윤의 국어 교과서 연구』, 『어문연구』 97, 어문연구학회, 2018.
- 이영미, 『미국 최초의 한국사 전공자 해롤드 노블 (Harold J. Noble, 1903-1953)의 생애와 한국연구』, 『한국학연구』 64,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2.
- 이재상 편, 『샌프란시스코지역과 한인들』, 샌프란시스코편찬위원회, 2004.
- Bresee, Katherine W., "The Navy Japanese Language School (1942-1946): Transformations of Perceptions through Language Study," MLS Thesis, Boulder, CO,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2009.
- Chun, Doris Sze, "The Agassiz Professorship and the Development of Chinese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1872-1985," PhD Dissertation, San Francisco, CA, The University of San Francisco, 1986.
- Hing, Bill Ong, *Defining America Through Immigration Policy*, Philadelphia, PA: Temple University Press, 2003.
- Department of the Army, *Mongolian Vocabulary: Modern Khalkha Language: Mongolian-English*, Washington D.C.: Department of the Army, 1953.
- Hays, David M., "Words at War: The Sensei of the US Navy Japanese Language School at the University of Colorado, 1942-1946," *Discover Nikkei*, 2008, <http://www.discovernikkei.org/en/journal/2008/4/10/enduring-communities>
- Hooper, Paul F., "The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and the Origins of Asian and Pacific Studies," *Pacific Affairs* 61, no. 1, 1988.
- Kim, Kichung, *An Introduction to Classical Korean Literature: From Hyangga to P'ansori*, London and

- New York: Routledge, 1996.
- Ko, Jung-Hyoo, "The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and the Korean Problem During the Pacific War," *Acta Koreana* 17, no. 1, 2014.
- Lessing, Ferdinand D., *Mongolian-English Dictionary*, Berkeley,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0.
- Lie, John, "The Tangun Myth and Korean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Transnational Asia* 1, no. 1, 2016. <https://transnationalasia.rice.edu/index.php/ta/article/view/13>
- McNaughton, James C., *Nisei Linguists: Japanese Americans in the Military Intelligence Service During World War II*, Washington, D.C.: Department of the Army, 2006.
- Matthew Haltod, *Mongol-English Practical Dictionary with English Word Reference List*, Chicago, IL: Evangelical Alliance Mission, 1953.
- Nahm, Andrew, "The Development of Korean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Korean Studies* 1, no. 2, 1971.
- Pritchard, Earl H., "The Foundations of the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1928 - 48,"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22, no. 4, 1963.
- Reischauer, Edwin O., "Nittō Guhō Junrei Gyōki: Ennin's Diary of His Travels in Tang China (838-847)," Ph.D Dissertation, Boston, MA, Harvard University, 1939.
- Sherman, Roger, "The Acquisition of the Mitsui Collection by the East Asiatic Librar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M.S Thesis, Los Angeles, CA,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1980.
- Tolbert, William,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and the Growth of U. S. Empire," *South Atlantic Review* 86, no. 4, 2021.
- You, Clare, *The Spread of the Korean Language: Through the Korean Diaspora and Beyond*, Berkeley, CA: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2018.
- Wang, Hye-sook, ed., *Rise of Korean Language Programs in U. S. Institute of Higher Education: A Narrative History*, Seoul, Korea: Korea University Press, 2015.

# Korean Studies As a Part of East Asian Studies

– a Cast Study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Jaeyong Chang\* · Rachel Min Park\*\*

While the discipline of Korean Studies has grown increasingly popular and widespread in recent years, there is often an assumed homogeneity between the “Korean Studies” practiced across different countries, eliding the specific sociohistorical contexts that led to its various disciplinary formations. In particular, there is a need to distinguish between the Korean Studies as practiced in South Korea proper and the United States.

This article examines how the development of Korean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was inextricably linked to the broader context of East Asian Studies, using the specific case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to consider how early research institutions (such as the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global events such as World War II and the Vietnam War, and federal-level education policies influenced the direction and tenor of research on Korea within the United States.

By reassessing the genealogy of Korean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and demonstrating its sociohistorical differences with its development in South Korea, this article ultimately aims to provide a productive framework in reconsidering research methodologies, promoting cross-country exchange in terms of scholarship, and future promising directions for the framing of Korean

---

\* C.V. East Asian Library, UC Berkeley

\*\* Department of Comparative Literature, UC Berkeley

Studies research.

**Key words:** UC Berkeley, East Asian Studies, Korean Studies, American Oriental Society,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U.S. Navy Japanese Language School, Title VI, Bong Youn Choy